

교수의회 ‘70%’ 새 제안 구성원 합의 계기 될까

〈구성원 투표비율〉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8.28 법인 이사회 의결 없어
구성원 대표자 회의 결과 유보
예정된 구성원 공식 회의 미정

총장 선출 투표비율을 놓고 빚어진 구성원 갈등은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2학기를 맞게 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법인 이사회 직후 박영국 총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구성원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법인 이사회에서는 경과보고만 있었을 뿐 별다른 의결 사안은 없었다. 의결 사안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구성원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이후 투표 반영 비율을 두고 설전을 이어오던 교수의회와 범경희 대학위원회(범대위)는 8월 중순까지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각각 안을 내놴다. 지난 7월 16일 범대위는 교수의회를 제외한 범대위 합의안을, 교수의회는 8월 19일 교수의회 안을 각각 대학 본부에 제출했다.

의견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8월 22일 ‘구성원 대표자 회의’라는 이름의 구성원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장과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경희대학교 노동조합(노조) 위원장, 경희학원 통합노조 위원장, 총동문회 동문대표, 교수의회 국제지회 의장이 참석했다.

구성원 대표자 회의에서 교수의회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교수가 70%의 투표비율을 갖고 나머지 구성원들이 30%를 나눠 갖는 형태로 교수는 직선, 나머지 30%는 그 비율과 방식을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안이

다. 2안은 교수가 2명, 나머지 구성원이 1명씩 총장 후보자를 각각 추천하는 형태였다.

교수의회는 3월 이후 줄곧 75% 이상의 교수 투표비율을 고수해왔다. 당시 구성원 대표자 회의에서 교수의회 국제지회 이장수 의장은 1안에 대해 “이전에 있었던 비공식 회의 자리에서 총동문회가 제안한 70%를 교수의회 위크숍에서 합의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비공식 회의는 마지막 공식 회의였던 지난 범대위 회의 이후 공백에 있었던 대화 자리다.

구성원 대표자 회의에서 총동문회 전병관 동문대표는 1안에 동의하며 “교수비율 70%와 나머지 30%를 각 구성원이 10:10:10으로 나누어 갖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했다. 이에 한상 노조 위원장은 “교수의회 안이 최종 범대위 안과는 상이하지만 교수의회가 고수하던 부분을 양보한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한 위원장은 “다만 총동문회에서 조금 더 조율된 투표반영 비율을 주셨으면 좋겠다”며 직원 13, 학생 13, 동문 4 투표비율을 제시했다. 전 동문대표는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 총동문회에 전달해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구성원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총장의 부재가 지속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학생”이라며 “교수의회 안과 총동문회 안을 그대로 수렴해 따른다면 지금까지 논의가 미뤄진 데에 대해 학생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3면으로 이어짐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지난달 21일 양 캠퍼스에서 2018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양 캠퍼스 학사 1,827명, 석사 292명, 박사 172명이 각각 학위를 수여받았다.
(사진 = 김혜준 기자)

“강의 수 대폭 감소” vs “졸업학점 축소에 따른 강좌 수 감소” 〈총학생회〉 〈교무처〉

정유나 기자 yunaight@khu.ac.kr

【서울】총학생회(총학)가 수강신청제도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통해 강의 수 축소에 대한 대답을 학교에 요구했다. 총학은 공식 SNS를 통해 ‘질반으로 줄어든 강의 개수, 책임은 누가 집니까?’라는 제목의 공개 질의서에서 강의 수가 줄어든 경위에 대한 설명과 조속한 후속조치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본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계획과 강사법에 따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그동안 학사지원팀과 총학은 매 학기 반복되는 수강신청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수강신청제도TF를 구성, 수강신청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취소신청지연제도 등의 도입으로 강의매매 현상은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총학이 본질적 문제로 꼽았던 강의 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2학기 수강신청 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총학 김영우(호텔경영학 2016) 부회장은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가 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1학기부터 강의 개수와 관련된 조사를 해왔다”고 말하며 공개 질의서 발표 계기를 밝혔다.

총학은 질의서에서 “수강신청 사이트를 참고해 수업 개수를 조사한 결과 정경대학, 호텔관광대학, 생활과학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에서 2018학년도 2학기 대비 강의 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번 ‘증원’이라는 일시적인 방법만을 사용하는 각 단과대 행정실의 대처에 대해 정원을 초과한 수업은 교수도 학생도 수업에 집중할 수 없으며 수업의 질도 저하된다고 비판했다.

강사법 시행으로 교수가 정해지지 않은 강의가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만약 강사를 구하지 못한다면

대다수의 과목이 결국 폐강이 될 것이고, 개강 후 수강정정 대란은 예견된 수순이라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전준하 담당은 “졸업이수학점축소에 따라 전공 수업 개수가 감소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총학이 2018학년도 2학기 대비 강의 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데, 총학이 제시하는 대폭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보통 대폭이라 함은 100% 중 30-40% 정도의 변화가 있을 때 대폭이라 하는데, 실제로 강좌 수에 그 정도의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본부에 해결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다”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재 총학과 대학 본부는 입장을 조율 중에 있으며 조만간 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경희인 소통 서비스 ‘경희톡’, 오는 9월 정식 오픈 예정

정유나 기자 yunaight@khu.ac.kr

경희인을 위한 소통 서비스 ‘경희톡’이 오는 9월 정식 오픈 될 예정이다. 경희톡은 기존 ‘KHU알리미’의 다음 버전으로, 단순히 메시지를 수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메신저, 교내 정보채널 구독, 그룹 생성과 같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형태다.

경희톡은 기존의 KHU알리미와 달리 쌍방향 소통 기능을 확대했다. KHU알리미에서 이뤄졌던 푸시 방식

공지 알리는 어플 내 공지사항 페이지를 이용하도록 변경됐다. 학생들이 불필요한 공지까지 알림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교내 부서와 연계된 정보채널을 구독하는 기능도 새로 추가됐다. 사용자가 원하는 채널을 구독하면 개개인에 맞는 피드가 구성돼 원하는 정보만 얻을 수 있는 형태다.

이에 더해 수강정보와 자료를 연동해 수업 구성원 간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끼리 조별 과제 등을 수행할 때 연락처를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학생끼리 자유롭게 워크 그룹을 만드는 기능도 추가됐다. 그룹 내에서 글을 올리고 댓글과 공감 표시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정보처 최창호 정보기획팀장은 “모바일 환경이 변화하는 시대에 기존 KHU 알리미는 메시지를 수신만 할 수 있어 꾸준히 이용하는 학생이 적었다”며 “양방향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SNS 플랫폼인 경희톡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알림

〈글자 크기가 커졌습니다.〉

대학주보가 다시 한 번 변화를 택했습니다. 9월 2일 발행되는 1650호부터 본문 글자 크기를 10.8포인트로 키웠습니다. 신문을 펼치는 순간 눈에 편안함이 느껴지며 기사를 읽는 시간은 단축됩니다. 독자를 위한 대학주보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경희

■ 구 폰트(9.5 포인트)
□ 신 폰트(10.8 포인트)

사령

면
〈서울뉴스팀장〉 김수혁(철학 2016)

명
〈서울뉴스팀장〉 김지원(국어국문학 2018)
〈기획팀장〉 김수혁(철학 2016)
〈정기자〉 김성수(컴퓨터공학 2016)

시선

사설

핑계가 아닌 개선 노력을 보여줄 때

수강신청 대란이다. 수강신청을 둘러싼 학생들의 불만은 이번 학기에도 여김없이 반복됐다. 수강신청을 학년 별, 전공별로 수일에 걸쳐 시행했지만, 잔여인원이 너무 적어 강의 신청이 어렵다는 것이다. 강의 개수가 부족하니 수강신청 경쟁이 심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총학생회는 일부 단과대의 강의 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학습권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강신청 대란의 목소리가 끊인 적은 없었다. 최근 몇 년 강의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실제로 2012년 8,243개에서 2016년 7,462개로 꾸준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2년간 강의 수는 다시 증가해 8,400여 개 규모를 회복했다. 강의 수가 줄 때나 늘 때나, 수강신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상존했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반복된 셈이다.

이번학기 수강신청은 학교 측의 해명조차 학생들에게 가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의 수가 줄었다는 총학의 주장에, ‘졸업학점이 줄어 강의 수도 감소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최근에서야 줄어든 졸업학점이 고질적 문제인 수강신청 대란의 원인은 아닐 것이다. 수강신청 불만 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할 답변이 아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답변이 필요했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적의 학습을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다. 등록금이 몇 년째 동결된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다. 수강신청 대란을 해소할 만큼 당장 강의 수를 늘리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다.

머리를 맞대고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한다.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할 때 근본적인 불만은 줄어 들 수 있다.

실제로 대학주보는 2006년부터 수강신청 대란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확인된 것만 무려 14년째 언급되는 문제임에도 이렇다 할 해결 노력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교 측은 비교적 최근 강의 매매라는 폐단이 나타났을 때 수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취소지연제’를 마련하는 노력을 보였다. 이젠 결가지만 처내는 식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 수강신청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해야한다.

학교 측은 강의 수요와 공급의 괴리를 해소하고자 노력해야한다. 현재 학교는 강의 수요를 예측한다는 명분으로 희망과목담기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희망과목담기는 사실상 학생 수강신청에 편의를 주기 위한 기능으로만 활용되는 상태다. 수요가 몰리는 것을 미리 확인해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이다. 고려대학교는 희망과목담기 기능을 통해 수요가 공급을 넘지 않는 강의는 자동수강 처리하고 있다. 일부 인기강좌를 제외하고 학생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대란을 완전히 잠재우는 건 아니더라도 수요를 일부분 분산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정답을 내놓으란 게 아니다. 정답을 찾아가는 노력부터 시작하잔 뜻이다. 이번 학기도 유아무야 넘어간다면, 고질적인 수강신청 문제는 또다시 정제되고 다음 학기에 반복될 것이다. 보다 본질에 가까운 새로운 시도를 위한 고민과 실천이 요구되는 때다.

정직한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완전한 경희

세시봉

이후승 <편집장>



“Honesty와 Integrity, 정직함과 완전함, 이 두 가지가 우리 경희대학교를 이끄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 지난달 27일 박영국 총장직무대행(대행)은 우리 신문 기자를 만나 이렇게 강조했다. 박 대행은 “문화세계 창조를 위해 우리 모두는 정직해야 하고 정직하지 않은 것은 완전하지 않다”며 “우리가 하는 일이 정직하다면 그 결과는 완전함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박 대행이 말한 ‘완전한 결과에 수반되는 정직한 과정’, 이는 현재 우리학교가 완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현안과 직결된다.

지난해 여름, 민주적 총장 선출 과정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 대표단이 모여 논의를 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학내 구성원은 그 동안은 이뤄지지 못했던 민주적 총장 선출을 앞두고 설렘했다. 하지만 어느새 1년이 지났다. 총장 선출 규정안(규정안) 합의가 이뤄지는 동안 많은 구성원이 우려를 드러냈다. 총장이 없는 모습은 지난 여름 수여된 학위증에 찍힌 총장직무대행 직인으로 다시금 대표되고 말았다.

새로운 총장이 뽑히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 규정안 합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각 구성원 대표자가 본인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정안을 원했기 때문이다.

결국 협의 안에서 과정의 정직함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미 합의된 투표 비율을 임의로 조정해 구성원의 반발을 산 집단이 있는가 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집단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과정의 정직함이 부족했으니 당연히 완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지금의 답보상태

정직한 과정으로 해결 필요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득이 되는 상황을 바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규정안 합의에서만큼은 그 당연한 현상이 당연하지 않아야 한다. 2019년 기준 교원 1,434명, 교직원 428명, 학생 34,016명, 동문 약 30만 명이상이 우리대학을 이루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구성원의 이익이 충돌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이익만을 바라며 합의점을 외면하는 현실은 우리학교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직함과 완전함이 결여된 하나의 사안이

만들어낸 나비효과가 크다. 미래과학관, 글로벌타워 신축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은 답보 상태고 재정 문제도 우려의 대상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엔 학내 노동조합 간 갈등 등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총장이 없다’는 말로 해결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일들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법인 이사회에서도 별다른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구성원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간 합의 불발 소식을 들을 때 마다 우리학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자주 해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소식을 듣고 ‘그럼 그렇지’라는 말을 입에 달게 됐다. 구성원은 계속해서 미뤄지는 규정안 합의에 지쳐가고 있다.

박 대행이 기자와의 만남에서 강조한 정직함과 완전함, 이는 규정안 합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아니었다. 총장이 없는 현실에서 학교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대표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단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그 발언을 듣고 단 한 가지 바람을 퍼올렸을 뿐이다. 부디 정직한 과정을 통해 완전한 결과가 나오기를.

‘라면 논법’의 순기능, SW융합 교육의 완성을 위해

취재수첩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상황을 미리 가정해보는 것’은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다.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조금씩 그 폭을 넓혀 나간다. 바로 ‘라면 논법’이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에서 저마다의 달콤한 청사진을 그린다. 마치 매 방학마다 ‘열심히 운동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면’이란 가정에서 비롯된 상상을 즐기듯 말이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SW융합학과)’는 라면 논법을 충실히 적용해서 설립된 학과다. SW융합학과의 출발점은 ‘사업에 선정되면’이란 가정에서였다. 실제로 SW융합학과가 신설되면서 ‘LINC+ 사업’, ‘SW중심대학사업’의 자격요건이 만족됐다. 학과 신설과 동시에 진행된 국고 지원 사업들은 다섯 학기가 지난 오늘까지 이어져온다. 그 과정에서 우리학교는 다양한 변화를 겪어 왔고, 이제 조금씩 수확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SW융합학과가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끓여온 ‘라면’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사업의 중반부를 지나온 이 시점부터, SW융합학과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라면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사업이 종료된다면’이라는 매운 맛 라면이다. ‘사업이 종료된다면’의 맵기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단기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맵기의 정도는 SW융합학과의 내실화가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은 SW융합학과 이념에 부합하는 전임교원 증원이다.

최근 우리학교가 대규모로 교원을 늘려오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관된 기준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이 모자라는 점은 아쉬움이 따르는 지점이다. 전임교수는 학과의 방향성을 장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주체다.

특히 ‘실무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신설된 SW융합학과는 더욱 그렇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교원 채용이

필수적이다. 당장은 SW중심대학사업단 소속 산학겸임교수가 부족한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이들의 계약은 사업 종료와 함께 만료된다는 한계가 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대책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SW융합학과의 교육 기반은 사업 종료와 함께 흔들릴 것이다.

SW융합학과의 내실에 빠져선 안 될 ‘양념’이 한 가지 더 있다. 사업 진행과 동시에 수반돼야 하는 것이 바로 학교의 지원이다. 실제로 SW융합학과의 교수 채용에 지원하는 실무 능력이 탁월한 기술자들은, 학과의 교육 이념에 아무리 부합한다 하더라도 교수 임용을 위한 자격요건 문턱을 넘기지 못해 그 뜻을 접고 마는 현실이다. 학교의 지원이 없다면, 이와 같은 사례는 계속해서 반복될 여지가 크다. 당장 우리 눈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SW융합학과와 학교의 충분한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

당장 보이는 성과에 안주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지금부터는 SW융합학과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 ‘사업이 종료된다면’이란 가정을 중심에 놓고 고민을 시작해보자. 전임교원 확충을 비롯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며 SW융합학과가 완성될 날을 기대해본다.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박영국 | 편집인 조영욱 | 편집장 이후승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지인(주) |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news | 이메일 kh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외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역삼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330-2, FAX 031-204-8121

조교제도 개선안, 대화가 필요해

문화령 기자 moonbym@khu.ac.kr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학교 측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으로 논란이 일었던 조교제도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새롭게 개선된다. 지난 달 24일 교무팀은 조교제도 개선 Task Force(TF) 결과에 따른 조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학기에 비해 평균 110만 원(일반대학원 기준) 정도를 추가로 수혜 받는다.

지난 학기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조교제도가 변경됐다. 교육부는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교 권익 강화를 목적으로 조교 운영 및 복무형태를 명확히 하도록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실제 근로 조건 변동 없이 장학금 대폭 삭감 ▲발령 직전 변동 사항 통보 등의 이유로 반발을 샀다. 이에 조교들은 캠퍼스 곳곳에 대자보를 붙이고,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교무팀은 “조교제도 변경에서 비롯된 문제를 인식하고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논란 속에서 개편한 조교제도를 우선 시행했다.

변경된 조교제도를 개선하고자 구성된 TF는 각 대학원마다 다른 수업료를 고려해 개선안을 냈다. 이번 학기 개선된 조교제도에 따르면, I형은 수업료의 80%(평균 약 474만 원), II형은 수업료의 40%(평균 약 237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학기 I형 364만 원, II형 182만 원의 수혜에 비하면 분명 개선된 내용이다.

평생교육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영훈(체육대학원 스포츠의학과 2기) 씨 역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이 여전히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난 학기에 비하면 장학 수혜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며 이번 개선안에 반가움을 표했다. 이과대학 수학과에서 수



업 조교로 근무하는 황효미(교육대학원 수학교육학 2기) 씨는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장학금이 지난 학기에 비해 늘었다”며 장학제도 변경에 대한 조교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 역시 불만의 여지는 남아있다. 황 씨는 “시험기간 등 경우에 따라 주 14시간의 근무를 초과하게 된다”면서 근무 시간 산정 및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학과 사무실에서 행정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조교들이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지만, 사실상 대비효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실 학교 측 결정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조교 입장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한영신 부처장은 “조교 복무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한 장학 혜택을 대안으로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신중하게 진행하고자 한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과 근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선 “학교에서 제시한 기준을 어기는 담당 부서 또는 교수의 책임”이라며 “학교 차원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를 진행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렇지만 학교 측의 불통에 아쉬운 목소리도 나왔다.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안지민(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 2기) 회장은 “TF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학생회와 교류가 전혀 없었다”며 “학생 대표를 참여시켜 주지 않더라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기 중에 실험 조교, 수업 조교, 행정 조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모아 학생 대표로서 입장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구성을 도맡았던 일반대학원 행정실에서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영신 부처장은 “TF 성격상 학생 대표와 함께 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TF 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학생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교제도에 대한 안내 또한 “조교제도 변경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고지된 사례가 없었다”며 “이번 학기에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부서를 통한 안내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 해당 내용을 메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면에서 이어짐

구성원 대표자 회의 후 약 열흘가량 지난 지금, 그동안 논의를 이어온 투표비율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다. 그러나 구성원 간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노조와 학생 대표는 지난 구성원 대표자 회의에서 밝힌 의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한상 위원장은 “지금도 구성원 대표자 회의에서 밝힌 의견은 유효하다”며 “당시 제안했던 13:13:4 비율에 대한 총동원회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총학 전완주(일본어학 2015) 회장 역시 “아직 학생 단일 의견을 도출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교수의회 안을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투표비율에 대해 더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캠 총학 김 회장을 비롯한 다른 학생 대표도 단일한 의견을 마련한 수준은 아니지만 투표비율에 논의 여지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구성원 대표자 회의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경희학원 노조 장백기 위원장은 이후 “투표비율을 논의하는 것으로는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교수의회가 제안한 1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2안은 차선책을 제안한 것임으

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총장 선출에 대한 구성원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 안지민(일반대학원 응용예술학과 2기) 회장은 “총장 공백이 커지면서 학생들이 받는 피해가 가장 크다는 말에 공감하기 때문에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다만 시간에 쫓겨 속행한다면 학생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 단체에도 피해가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바른 합의점을 찾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투표비율에 대한 갈등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차선책 논의도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두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히며 “계속되는 논의에 구성원들은 피로를 느끼고 있으니 중요한 책임 당사자인 학교 당국이 적극적으로 타협점을 찾도록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한 위원장 역시 “마감기한을 맞추지 못했으니 이사회에서 선임하겠다는 오판은 하지 않으셨으리라 믿는다”며 “많이 지연됐지만 구성원 간 구체적인 합의가 가는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28일 이사회가 아무런 의결 사항 없이 끝난 가운데 총장 선출 규정안 합의를 위한 공식적인 회의는 아직까지 예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2일 국제캠퍼스 학생회관에서 구성원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

2019 KHU 취업박람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

9.4 (수) ~ 9.5 (목)

10:00 ~ 17:00

KHU

취업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참여 기업 정보를 알아보자!

PROGRAM

기업채용 · 상담 ZONE |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기업, 중견기업 등
직무전설 ZONE | R&D, 생산품질관리, 전자 반도체, 영업 마케팅
창업 ZONE | 창업 아이디어 전시회, 창업 신배 멘토링
채팅 · 이벤트 ZONE | 이력서 클리닉, VR면접 체험, 무료이력서 사진촬영, 피스넵 릴러전단

주최 경희대학교

주관 경희대학교 미래인재센터, (주)엘리트코리아

올바른 논문작성법과 연구윤리

2019-2학기 연구력강화워크숍

2019. 9. 19 (목) 오후 2시
중앙도서관 1층 컨퍼런스룸

강사
황은성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전 서울시립대 연구처장 / 산학협력담당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기획운영위원장

강연구성

- ◆논문 어떻게 잘 쓸 것인가?
- ◆좋은 논문 글쓰기와 표절 예방
- ◆저자로서의 자격과 역할

신청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 RESEARCH > 학술정보활용교육
(<https://library.khu.ac.kr/seoul/workshop>)

문의 | 02-961-9285 / khsd3016@khu.ac.kr (학술연구지원팀)

대상
교원, 대학원생, 학부생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KUMH KUMH UNIVERSITY LIBRARY

뉴스

우정원 리모델링, 내년 넘어 2021년에



우정원 편의시설 대부분이 영업 중단됐고, 기존 푸드코트에는 셔터가 굳게 닫혀 있다.

김혜준 기자 khj_hyejun@khu.ac.kr

【국제】 우정원 리모델링 계획이 미뤄지고 있다. 당초 우정원 리모델링은 내년 4월에 첫 삽을 뜰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2021년 착공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기숙사를 정상 운영하지만, 편의시설 대부분의 계약이 종료돼 불편이 예상된다. 국제 생활관 유종근 계장은 “리모델링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후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학교 측이 편의시설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이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제10조 2항에 따라 임차인이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앞두고 편의시설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가게가 입점하기 어려운 이유다.

현재 우정원 1층에서는 하나은행만 영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점도 입점했다. 재정예산처 재정사업팀 유상희 직원은 “서점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총학생회와 논의해 우선 입점하게 됐다”며 “하나은행과 서점은 리모델링 기간에도 학생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정원에는 기존 편의시설이 빠진 자리에 쉼터와 라운지 등이 마련됐다. 또 학교 주변 편의시설 안내 지도를 부착해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유 계장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편의점 입점도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편의시설은 정문 옆 골목인 ‘마울’과 정문 건너편까지 나가도 찾을 수 없어 학생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 우정원에서 6학기 째 거주하고 있는 신나리(원예대학원 2018)씨는 “우정원 1층에 있던 약국을 자주 이용했는데, 이제 약국을 가려면 영통 중앙상가까지 나가야 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편의점에서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등 상비약 판매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에 따르면 상비약 판매자 등록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에서만 가능하다.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교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려면 법적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뜻이다. 유 계장은 “우선 사감실에 상비약을 구비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정원 리모델링 기간에는 제2기숙사 신입생 우선 선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우정원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사생 수요를 제2기숙사가 분담하기 위함이다. 직전 학기 성적 50%와 통학거리 50%를 합산해 사생이 선발될 예정이다. 유 계장은 “단과대학별 학생수에 따라 정원을 배정해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공간이 줄어들어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우정원 관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유 계장은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설을 점검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늦어도 착공 6개월 전에는 공사 기간을 확정해 학생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학과사정 고려 않는 폐강기준
소수학과 불편 감수 여전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서울】 서울캠퍼스(서울캠) 소수학과 학생들이 여전히 확인화된 폐강기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학 정원이 적은 것에 비해 폐강 기준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탓이다.

지난달 29일 학사지원팀은 2019학년도 1차 폐강강화 공고를 게시했다. 우리학교는 전공과목 15명 미만, 교양 및 기타 교과목 20명 미만이 신청한 경우 강의를 개설하지 않는다. 이 폐강기준 수강인원은 서울캠 모든 단과대학에 일괄 적용되고 있다.

우리신문은 지난 2017년 확인화된 폐강기준으로 수업을 듣지 못하는 학생의 사례를 다뤘다.(확인적 폐강기준으로 소수학과 ‘진통’/ 2017. 9. 18 / 대학주보 1624호) 당시 인터뷰에 응했던 음악대학 작곡과 학생은 “학과 사정에 맞지 않는 폐강기준 때문에 학생들과 학과 행정실 모두 소모적인 업무를 하는 것 같다”라며 “듣고 싶은 강의가 없어질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학업에도 지장을 받고 사유서 작성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고 불만을 표했다.

개선 없는 폐강기준
악순환만 반복

확인화된 폐강기준으로 소수학과는 매학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재학생이 적고 특수성이 강한 음악대학 작곡과가 대표적이다. 작곡과는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마다 조교가 강의 폐강을 막기 위해 우리학교 학사지원팀에 ‘강의 개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작곡과 한시정 조교는 “폐강을 막기 위한 최소 인원이

15명인데 입학 정원이 16명이라 타학과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한 “개설 신청서를 학기마다 제출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며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실제로 작곡과의 한 조교는 올해 2학기를 앞두고 12장의 강의 개설 신청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도 소수학과와 불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서울캠 학사지원팀 전준하 직원은 “확인화된 폐강기준으로 소수학과가 일일이 개설 신청서를 써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기준에 대한 요청이 있어 내부회의를 거친 적은 있지만 아직 폐강기준을 조정할 추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 직원은 “너무 많은 사항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타 학교로 눈을 돌려보면 학과 운영 실정에 맞게 폐강이 유연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존재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는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전공과목의 폐강을 결정한다. 입학 정원이 40명 미만인 학과는 수강인원이 7명 미만일 때, 입학 정원이 40명 이상 60명 미만인 학과는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때 폐강한다. 입학 정원이 60명 이상인 학과는 수강인원이 12명 미만일 때 폐강한다. 한양대학교 역시 소규모 학과의 경우 입학정원의 40%를 폐강기준으로 한다.

한편, 작곡과 한 조교는 “폐강기준이 10명 정도로만 줄어도 폐강되는 강의 수가 훨씬 줄어들 것 같다”며 “학교 측에서 폐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다른 대책을 마련해주면 서로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국어 · 외국어 전문 교육 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인원수 미달로 폐강된 강좌는 추가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 등록기간 : 2019.8.19.(월) ~ 2019.9.6.(금) 16:00까지

• 추가 등록기간 : 2019.9.9.(월) ~ 2019.9.13.(금) 16:00까지

강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9.9.9.(월) ~ 2019.10.18.(금)

Level Test

• 영어 : 2019.9.4.(수), 9.5.(목) 17:30

• 중국어 : 2019.9.4.(수) 17:30

• 일본어 : 2019.9.5.(목) 17:30

• 테스트 후반 배정 : 2019.9.6.(금) 오후 8시 이후 www.iie.ac.kr 에서 확인

Sample Class

• 영어 : 2019.9.4.(수) 17:15 ※샘플강의는 강좌신청과 상관없이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강의시간표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월~목)		오후반 18:30~19:50 (월, 수, 목)				
	레벨	Beginning / Low-Intermediate / High-Intermediate / Advanced		Absolute Beginner / Beginning / Low-Intermediate / High-Intermediate				
	수강료	150,000원						
영어레벨업	시간	오후반 18:30~19:50 (화)						
	레벨	Ted Talk (A), (B)		News Talk		Academic Writing Workshop		
	수강료	9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화, 목)	오후반 18:00~20:00(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수강료	150,000원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초급3/ 중급1/ 고급1/ 고급2	초급1	초급2	초급3	중급1	고급1	고급2
	수강료	150,000원						
스페인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월)		오후반 19:30~21:00 (화, 수)		오후반 18:00~19:30 (화, 수)		
	레벨	초급1		초급3		중급 2		
	수강료	100,000원		120,000원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3		
	수강료	150,000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Tel. 02) 961-0081~82 <http://www.iie.ac.kr>

실무검비한 전임 증원, SW융합교육의 마지막 매듭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국제】 소프트웨어융합학과(SW 융합학과)가 설립된 지 다섯 학기가 지났다. 학과 운영이 안정화되는 현재 ‘SW중심대학사업’에서 비롯된 성과가 나타남과 동시에, 실무 교육의 내실화 과정이 정제되고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특히 우리학교의 교수 임용제도와 SW융합학과와의 방향성이 서로 맞지 않아 전임교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W융합학과는 기존 학과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타 전공과의 융합과 실무 기초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SW융합학과 학생들은 2학년이 되는 시점에 본인의 융합 전공(트랙)을 결정한다. 이때 선택한 트랙에 따라 교과 과정이 세분화되며, 실제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실무 교육을 받는다.

SW대학 학생 대상의 현장 교육이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SW중심대학사업 선정이 있다. 우리학교는 지난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센터(IITP)의 SW중심대학사업에 선정돼 4년간 총 70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했으며, 이후 2021년 평가를 거쳐 4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70억 SW인프라 구축에” 타 학문과 연계 통한 융합교육 확대/대학주보 제1619호 5면, 2017.04.17)

‘산학필수’ 교육 불투명 전임교원 인프라 확충 필요

SW중심대학사업단은 SW대학 학생들에게 기업과 학교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NHN Entertainment 장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형률(컴퓨터공학 2013) 씨는 “실무 현장에서 사용되는 개발도구를 접해볼 수 있었다”며 “현업 개발자들과의 스터디를 통해 SW개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배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1년에 약 30명의 학생이 방학 중 해외연수에 참여한다. 특히 미국 새너제이주립대 ‘SCSTIP(Silicon Valley Software Technology & Innovation Program)’ 프로그램은 인근 실리콘밸리를 경험해 볼 수 있다. 김가영(컴퓨터공학 2017) 씨는 “실무에서 고려해야 하는 비즈니스 플랜들을 설계해보는 경험이 새로웠다”며 “실리콘밸리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짧게나마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SW중심대학사업단 조진성(컴퓨터공학) 단장은 “사업 이전과 비교했을 때 SW대학 학생들의 외부 활동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며 “학생들이 대학교라는 우물을 벗어나,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장을 학교 차원에서 만들어줬다”고 설명했다.

SW융합학과 출범 당시 전임교수는 2명이었다. 이후 2명이 충원됐지만, 한 명이 그만두면서 다섯 학기가 지난 현재 SW융합학과 소속 전임교수는 3명이다. 현재는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산학겸임교수인 실무 재직자가 부족한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타 전공과의 융합 교육을 지향한다는 학과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총 202명의 SW융합학과 학생들에게 학과의 이념에 부합하는 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주체가 3명뿐이란 사실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15명이 전임교수로 소속된 컴퓨터공학과와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차이는 뚜렷해진다.

더욱이 SW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2018년부터 SW대학 학생들은 실무 현장에서 쓰이는 개발도구와 방법론에 대한 강의(산학필수)를 반드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SW중심대학사업단 조 단장은 “실무 재직자들이 산학겸임교수로 초빙돼, 학생들에게 산학 교육 및 현장에서 사용되는 개발도구를 활용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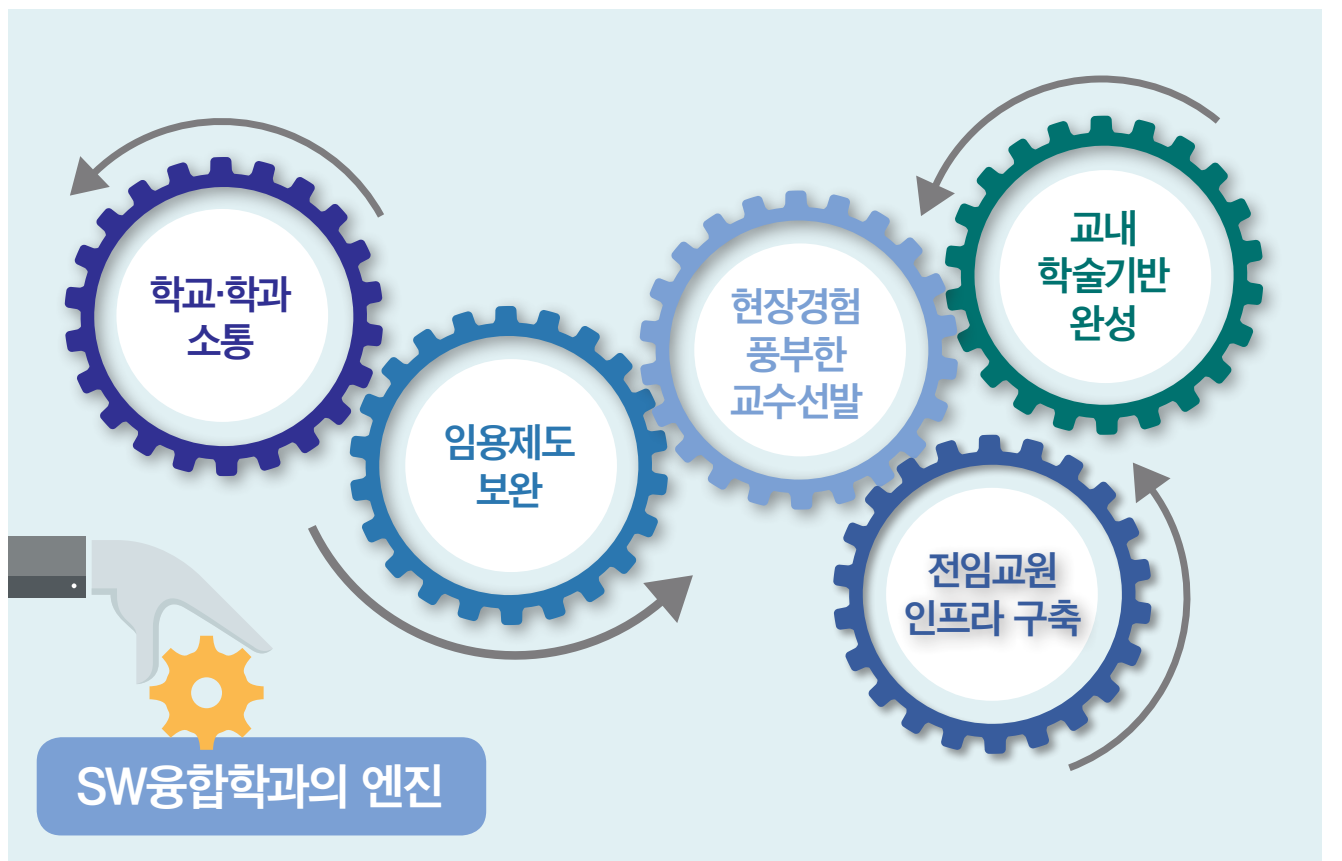
‘지원자격’에 발목잡혀 임용제도 보완 이루어져야

당장은 산학겸임교수로 학생 수요를 맞추고 있지만, 이들에겐 교단에 설 수 있는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실무에 재직하고 있는 산학겸임교수들은 현재 SW중심대학사업단 소속으로, 이들의 임용 및 계약 과정에 사용되는 비용은 전액 SW중심대학사업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만약 SW중심대학사업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2021년부터 산학필수 항목에 대한 교육과 겸임교원의 채용·재 채용 여부는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그만큼 SW융합학과와 전임교원 증원은 필수다. 3명의 전임교수가 매우 부족한 부분은 ‘유통기한’이 있는 겸임교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SW융합학과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역할은 전임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이다. SW융합학과가 학과의 방향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전임교원의 증원을 통해 SW융합학과와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고 SW중심대학사업 종료 이후까지도 실무 교육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임교원 공채에 지원하기 위해선 각 단과대별로 상이한 지원자격을 필수적으로 만족해야 한다. SW대학의 2019년도 2학기 전임교원 공채의 경우 박사 이상의 학위와 최근 4년 간 SCI 논문 4건 이상의 연구실적을 요구했다.

문제는 실무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에게 지원자격이 ‘걸림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무 재직 기간에 박사학위 취득, SCI 논문이 등재되는 경우는 드물다. 현장 경험에



SW융합학과 과거와 미래



서 강점을 보이는 지원자들이 연구·논문실적까지 충족하기 어려운 이유다.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자격이 우선 만족돼야 하는 상황인 탓에, SW융합학과와 이념에 부합하더라도 연구·논문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SW중심대학사업단 조 단장은 “SW융합학과와 전임교원 채용은 우리학교의 교원 채용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연구실적과 현장 경험을 모두 갖춘 사람은 교수 시장에서 찾기 힘든 현실이다”며 안타까워했다.

연구·논문실적이 부족하더라도, 전임교원 채용의 등용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캠퍼스 교무팀 지성환 계장은 “일정 자격 요건을 만족한다면, 특별채용을 통해서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학교 학칙에는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21조 「특별채용 자격」이 존재하지만, 특별채용에서도 ‘정년 트랙 전임교원’으로 지원할 때 논문실적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결국 실무 경험과 능력만으로 전임교원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은 특별채용에서조차 막혀있는 셈이다.

SW융합학과는 여태껏 교원 채용이 있는 학기마다 전임교원 채용 공고를 내왔다. 학과 출범 이후 공채를 통해 SW융합학과와 전임교원이 채용된 경우는 두 차례에 불과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은 매년 자격요건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사학위’, ‘SCI 논문’이란 자격요건이 SW융합학과와 이념을 담아낼 수 있는 기준인지는 의문이다.

교내 실무 교육이 신설 당시의 기대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학생들의 의견도 있었다. 주민하(SW융합학 2017) 씨는 “학과 특성상 교수들의 실무 능력이 중요시된다”며 “이론보다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우대해서 교수로 뽑아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결국 SW융합학과가 실무 교육을 장기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교수 임용제도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SW중심대학사업단 조 단장은 “SW융합학과와 전임교수 증원에 대해 학교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W융합학과와 학문적 기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해 학과와 학교의 충분한 소통이 더욱 요구된다.

교육

시행착오 겪은 ‘세계와 시민’, 달라진 모습으로 새 학기 준비

김수혁 기자 sherik@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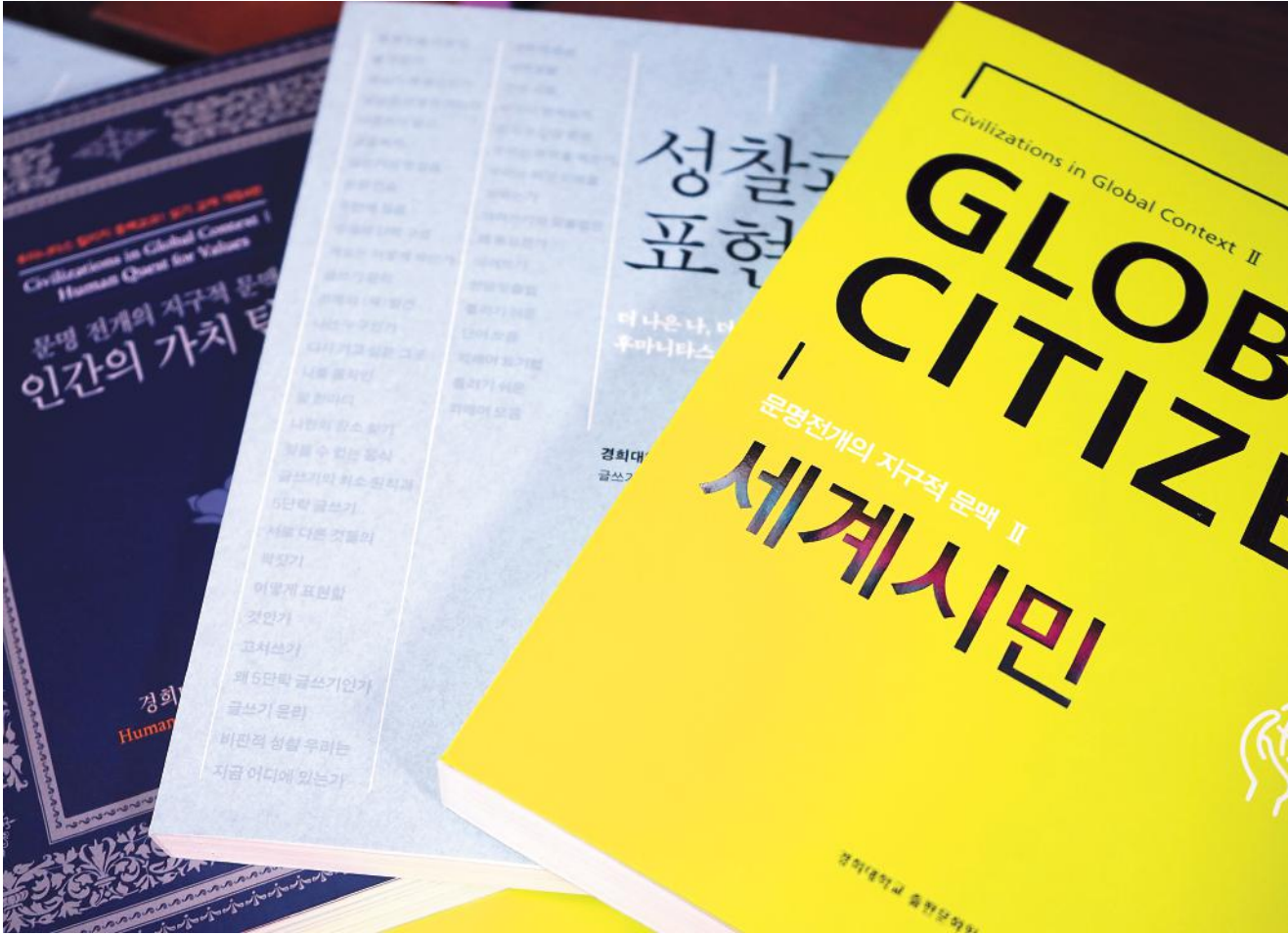
논란과 기대 속에 닳을 올린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재도약 개편안이 시행 두 학기째로 접어든다. 필수과목 수 강인원 축소와 ‘세계와 시민(세시)’ 과목 신설 등 주요 개편사항에 대한 학생, 교수, 학교의 평가를 통해 개편안 시행 첫 학기를 돌아봤다.

후마 재도약 개편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빅뱅에서 문명까지’를 제외한 필수교과 과목의 강좌당 정원 조정과 기존 필수교과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계(우사세)’와 ‘시민교육(시교)’을 통합한 세시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서울캠퍼스 후마 이영준 학장은 강좌당 정원을 25명 선에 맞춘 수강인원 조정으로 인한 결과를 개편안 시행 첫 학기 최고의 성과로 꼽았다. 이 학장은 “모든 교수자가 공통적으로 호평하고 있다”면서 “해당 과목들의 강의평가 평균이 5점 가량 상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간의 가치 탐색(인가탐)’ 과목을 강의한 최준석(후마) 교수는 “정원이 많았을 때는 발표나 토론 때 서로 눈치만 보고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라면서 “인원이 적어지니 학생들끼리도 서로 금방 얼굴을 익히고 가까워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쉽게 조성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학기부터 글쓰기 수업인 ‘성찰과 표현’, ‘주제연구’와 ‘대학영어’ 수강인원은 각각 30명, 20명, 20명으로 조정된다. 이 학장은 “후마 대학생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학생 의견을 참고했고 주제연구는 학생-교수 간 개인 지도가 중요한 과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소문을 들은 학생 사이에서 과목 취지와는 반대로 실천 프로젝트 비중이 낮은 수업을 찾아 들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다

신설과목인 세시에 대한 평은 다소 엇갈렸다. 세시미인 교육의 필요성과 시의적절성을 높이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보완과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도 또한 있었다. 세시를 수강한 장우성(철학 2019) 씨는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러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장 씨는 “기후변화나 난민 문제 같은 주제들이 제시됐는데 실천 프로젝트에 반영하려니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해 감을 잡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담당 교수에 따라 수업 진행 방식이나 평가 기준이 다른 것도 불만이었다”면서 “같은 과목임에도 지필 시험 여부도 달랐고 실천 프로젝트는 단순히 계획서만 제출해도 인정해주는 수업도 있었다”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 씨는 또 “이렇다 보니 소문을 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과목 취지와는 반대로 실천 프로젝트 비중이 낮

은 수업을 찾아 들으려 하는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세시를 강의한 교수들의 평가 가운데 맥이 닿는 부분이 있었다. 이강준(후마) 교수는 “신설된 과목이다 보니 교수자들 간에 합의된 교과 운영 지침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학기 중 워크숍 등을 통해 동료 교수자들 사이에 정보와 고민을 나누며 교수별 개성을 살리면서도 과목 동질성을 확보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교수는 “세계시민 교육의 필요성, 과목의 설립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평했다. 그는 “교재에 좋은 글이 많이 실렸지만 그로부터 팀 프로젝트에 필요한 실천의제를 끌어내기는 어려웠다”라며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과목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납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시교를 강의했던 교수뿐 아니라 우사세나 인가탐 과목을 강의하던 교수들도 세시를 맡았는데 실천활동 지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강의 별 편차가 두드러진 것 같다”고도 말했다. 결국 1학기 수업을 진행한 뒤 개별적으로 의사를 물어 이번 학기부터는 세시 배정에서 제외된 교수들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교재 개선 필요성도 지적됐다. 정우탁(후마) 교수는 “잘 만든 교재라고 생각하지만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듣는 교양강의의 교재로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주로 유명한 저술로부터 발췌한 글들이 많은데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원문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게 마련이다”라면서 “어디까지나 교양강의인 만큼 세계시민이라는 주제에 관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후마 이 학장은 “제기된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학기는 학생과 교수들이 정확한 교과 내용의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수업이 진행된 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선 이번 학기부터 강의지침을 확실히 하고 실천활동 지도를 돕기 위한 워크북을 도입한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평가방식 편차 문제에 있어서도 담당 교수들에게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학장은 또 “교재에 대한 수정 의견 수렴 또한 꾸준히 진행해 다음 개정 때 반영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대학주보 68기 수습기자 모집

- **모집 대상** : 우리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중 4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 **전형 일정**
 - 서류 전형 (지원서 작성) : 9월 2일 월요일 ~ 9월 10일 화요일
 - 면접 일시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후 일정 조율
 -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전형 방법**
 - 1차 : 서류전형 (입사 지원서 및 필기시험 작성 후 제출)
 - 2차 : 개별 면접 진행
- **접수방법**
 -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 팝업창에서 입사 지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제출
- **주요 업무**
 - 학내 뉴스 아이템 발제 - 주 1회(월) 주간회의 필참
 - 발제 아이템 기획 및 취재 - 온라인, 지면 기사 작성
- **활동 혜택**
 - 장학금 지급 (최대 전액) - 원고료 지급 - 현직 언론인 특강 - 해외취재 기회 제공
-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
 - 대학주보 인스타그램 DM (khunews_jubo)
 - 연락처 : 010-4004-0653 편집장 이후승, 연락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 전화 : 02-961-0095 (서울캠퍼스 편집실), 031-201-3232 (국제캠퍼스 편집실)

‘우연’이 주는 인간다움

교수칼럼

고봉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영화 <브로큰 플라워(2005)>는 한 남자가 자신의 과거와 대면하는 이야기이다. 젊은 시절 바람둥이였던 남자에게 익명의 편지가 날아든다. 남자에게 그가 모르는 아들이 있다는 것. 남자는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연인들을 찾아 나서는데, 그 여행에서 정작 그가 마주하게 된 것은 자신의 과거이다. 인생은 오직 ‘직진’이라고 믿으며 사는 남자에게 삶을 성찰할 계기를 주는 것, 이것이 ‘우연’의 힘이라는 게 영화의 메시지이다.

현대사회는 삶에서 우연적 요소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검색’ 문화가 대표적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검색을 반복한다. 버스과 지하철의 도착시간을 검색하고, 소문난 음식점의 메뉴와 평점을 검색하며, 강수 확률과 미세먼지 농도 같은 생활정보를 검색한다. 나는 검색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은 현대의 슬로건이다. ‘검색’은 모든 것에 즉각 응답한다. 체형이나 취향에 맞는 헤어스타일, 패션을 결정해주고, 자신의 스펙과 희망조건을 입력하면 적당한 결혼상대를 검색해주는 서비스는 이제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 생체·유전



영화 <브로큰 플라워>는 우연이 갖는 힘을 이야기한다.

정보를 입력하면 매 끼니 식단, 운동 종류, 수면시간 등을 알려주는 최적화된 건강 서비스가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다.

우리의 삶에서 ‘우연’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우선 취향에 맞지 않는 영화를 보거나 체질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먹어선 안 되는 음식을 먹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예측 또는 계산 범위를 벗어난 사건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장면을 떠올려보자. ‘검색’은 우리가 여행에서 맛닥뜨릴 수 있는 모든 우연적 사건을 손쉽게 해결해줌으로써 심리적, 물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검색’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음식점과 싸고 편안한 숙소를 찾을 수 있고,

바가지요금이나 범죄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검색’ 없이 떠나는 여행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검색’이 편리함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검색’이 주는 편리함은 우연을 배제하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우연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 인식, 행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과 경험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언제나 동시에 발생한다. 인터넷은 내 취향에 적합한 음악을 추천하면서 동시에 타 장르의 음악을 접할 가능성을 제거한다. 결국 취향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에는 취향에 맞지 않는 ‘외부’를 경험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셈이

다. 우리는 늘 비슷한 음악을 듣고, 비슷한 음식을 먹고, 똑같은 풍경을 보면서 출퇴근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까? 지하철이 멈춰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해야 할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경을 경험하게 된다. 검색으로 맛집을 찾아갔는데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그 가게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된다. ‘우연’은 다른 세계를 ‘강제로’ 경험하게 만든다.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쏟아내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우연’으로 인해 고생한 경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어쩌면 진짜 여행은 고생에 있는 것이 아닐까. 우연이 불편함을 초래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검색’에 의지하는 한 타인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을 뿐이고, 익숙한 세계의 ‘바깥’을 경험할 가능성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스마트폰이 제시하는 것이 ‘검색 결과’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라는 것, 검색 주제나 검색 지역에 따라 필터링된 부분적인 내용만을 알려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검색’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는 최근 검색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 자주 쓰는 단어 따위에 근거해 나의 인식과 판단을 선(先) 규정한다. 한 철학자는 이러한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필연성의 세계를 ‘동물화하는 세계’라고 주장했다.

‘동물화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구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필연’을 부정하고 삶을 ‘우연’에 맡기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연’과 ‘필연’의 균형이 인간다움을 규정함을 이해하는 것, 그리하여 아마존이나 유튜브의 추천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우연’의 배제는 우리에게서 인간다움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가끔은 ‘검색’에 의존하지 않는 판단이나 선택을 할 필요도 있다. 가령 에브리타임에서 ‘검색’하지 않고 수강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들은 ‘계획’이나 ‘검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어찌다, 우연히 일어난다.

교수사회의 변화를 위해 - ①

강사법 시행과 총장 선출



김종인(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김종인 교수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학 내부의 불합리를 절실히 체험했다고 말한다. 그는 내부자이자 관찰자로서 그간 직접 보고 겪은 문제들을 알리기 위해 칼럼을 연재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총 6회 분량의 연재가 계획돼 있다.

지난 여름 한국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한일관계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문제에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서도, 사회 일반의 관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왜곡된 현실을 반영하는 두 가지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졌다. 대학의 시간강사법 시행과 경희대학교 총장 선출 문제다. 나는 시간강사가 아니어서 강사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직접 겪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전임교수도 아니어서 총장 선출 문제에 관여하지도 않는다. 객원교수 신분인 나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문제에 철저히 제3자의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사회의 일원으로, 경희대학교의 일원으로 나는 이 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8년을 끌어오던 강사법이 이번에 시행됐다. 시행 방식을 두고 정부 당국과 시간강사들이 합의까지 이뤄졌지만, 시행 결과는 강사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아파트 10채 값도 안 되는 돈으로 3만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위선이다. 공채라는 형식 때문에 시간강사들은 여름 방학 내내 논문 한 편 쓸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 가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각종 증빙 서류를 갖춰 이 곳 저 곳에 지원서를 내야 했다. 공

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곳에서 강의를 얻은 사람은 극히 미미한 숫자로 보인다. 대부분 기존에 강의 하던 곳에서 같은 강의를 얻거나 탈락하거나이다. 임용 절차만 요란하고, 결과는 더 좋지 않다. 대학이 강의 수를 줄이고, 전임교수의 시수를 늘려 시간강사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일 자리를 잃은 시간강사들은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할 태세다. 어떤 식이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낼 수 있는 곳은 정부밖에 없지만, 정부도 시간강사들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일차적으로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냉정히 보면 과잉 공급된 박사를 위한 재정 투입은 사회적 낭비이고 불공정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정부에만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타당한 일도 아니다. 국가가 문제를 방기한 것은 사실이나 주된 책임은 수많은 박사를 마구잡이로 양산한 대학사회, 특히 전임교수들에게 있다. 윤리적으로는 그들에게 해결책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옳다. 전임교수 집단이야 말로 시간강사 문제에 책임이 큰 집단이다.

사회적 집단은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지녀야 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권리와 권력만 행사하려 하고 책임지는 않으려고 한다. 특권화한 집단들은 사회의 장애물이 된다. 오늘날 대학의 전임교수 집단은 특권화 된 집단의 전형이다.

경희대학교는 지난해부터 총장 선출 방식을 두고 학내 여러 집단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여 한 학기 넘게 총장직무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합의가 안 된 주요인은 학내 집단 간 총장 선출을 위한 투표 반영 비율인데, 전임교수들이 자신들의 몫으로 70% 가량을 주장한다고 한다. 사회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전임교수들의 의식에 대해 말하고 싶다. 경희대학교 전임 교수들에게 묻고 싶다. 총장 선출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기 전에 대학의 오랜 문제이자 동료이기도 한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무언가 해결책을 도모해 본 적이 있는가?

권리는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대표적인 두 집단이 있다. 하나는 언론인 집단이고 또 하나는 대학의 전임교수들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 집단이다. 과거에 이 두 집단은 사회를 비판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인 것처럼 행동했다. 사람들 역시 많은 것들이 쉬이 드러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 두 집단이 그렇게 행동해도 될 만한 개인적 혹은 집

단적 도덕성을 갖추었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언론인의 맨얼굴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람들은 언론인을 기레기라고 부른다. 교수의 민낯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교수의 망언이 술하게 드러나고, 성추문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들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조교에 대한 갑질은 이미 많이 알려졌다.

시대는 변했다. 교수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사회의 등불이자 지성으로 비유되는 그런 신성한 책무가 아니다. 시간강사들은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강사료를 받는데 자신들은 고액 연봉을 받는 데 대한 현실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이 없다. 사회에 자신들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시대착오적 권리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교수들에게도 어떤 경멸적 별칭이 생기지 않았는가?

<연재칼럼 목차>

1. 강사법 시행과 총장 선출
2. 대학의 주인은 재단이나 교수가 아닌 사회
3. 대학교수들의 구시대적 권리 행사
4. 교수 길드의 전근대적 폐쇄성, 대학교육 낙후
5. 교수 길드의 해체를 위한 국가공인박사제도
6. 교수들의 관습적 권한을 폐기해야 한다

경희인 - 아침을 여는 사람들 ③

‘파란 모자 쓴 아저씨’의 왼쪽 가슴에 담아낸 소망

국제캠 노천극장 청소노동자 오성문 씨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 우리학교에는 남들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 아침,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그들의 땀방울은 우리학교의 아침을 이룬다. 우리신문은 ‘경희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을 만나봤다. 교정을 거닐면서 무심코 지나쳐왔던 그들의 목소리, 그 속에는 각자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지금부터 현장에서 마주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매미산의 산자락을 이불삼아 작은 연못을 등지고 있는 곳, 국제캠퍼스(국제캠) 노천극장은 교정의 가장 외판 곳에 떨어져 있다. 노천극장의 아침은 조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동이 트자 새들은 공간을 노닐며 빈 무대의 주인공 공이 되어 노래를 부른다. 그곳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노천극장의 빛나는 아침을 만드는 오성문(61) 씨를 만났다.

첫 눈에 오 씨의 얼굴을 자세히 알아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눈썹이 보일 듯 말 듯 폭 늘려쓴 모자와,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여기까지 올라 오느라 고생했고, 내려와서 앉아.” 이야기를 나누려 노천극장 아래 대기실에 들어갔지만, 오 씨는 실내에서도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다.

20대 중반, 오 씨는 인테리어 사업에 뛰어들었다. 막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시기였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꿈.’ 그는 세상의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이루고 싶었다. “사업이 잘될 때는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간이 흘러 오 씨의 머리에 희끄무



용역업체 유니폼을 벗은 오성문 씨에게는 ‘KHU’ 로고가 달린 모자가 더욱 잘 어울렸다.

“이제 진짜 경희대학교 소속이 된 거니까 금지가 생기지 단순히 내 욕심이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 잘 된 일이야

“



‘파란 모자 쓴 아저씨’ 시절의 오성문 씨.

레한 빛이 내려앉았을 때였다. 인테리어 사업은 특성상 비수가 길다. 그는 언제부턴가 이 공백을 술로 대신했다. “멍하니 앉아 있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 몸도 마음도 망가져버린 힘든 시기였다.

건강이 악화되자 결국 오 씨는 가게의 문을 닫았다. 시원찮았던 마음을 뒤로한 채 새 일을 찾던 오 씨가 국제캠에 온 것은 6년 전, 지인에게 소개를 받으면서부터였다. 몇 푼 안 되지만 매달 들어오는 급여와 규칙적인 일상은 오 씨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일을 해보겠다고 덜컥 계약을 했지만, 몸보다는 마음이 문제였다. “남들 보는 앞에서 빗자루를 드는 일이 맨 처음엔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몰라.” 이유 모를 자격지심이었는데 ‘빗자루를 손에 쥐는 일’에는 생각보다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던 오 씨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바로 모자와 선글라스를 이용해

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었다. 일할 때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는 습관은 오늘 날까지 이어진다. “지금은 모자랑 선글라스가 없으면 허전한 느낌이야.” 언제부턴가 오 씨는 동료 미화원들에게 ‘파란 모자 쓴 아저씨’로 불리고 있다. 부끄러움을 이유로 처음 시작했던 습관은, 이제는 그를 생각하면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가 됐다.

오 씨의 하루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른 5시 40분에 시작된다. 7시, 학교에 도착하면, 버스 차고지 뒤편 대기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다. 그러곤 동료들과 밖으로 나와, 팀장의 구호에 맞춰 손, 발목을 풀며 아침 체조를 한다. 그가 새 하루를 맞을 준비는 이렇게 끝난다.

오 씨는 노천극장 진입로부터 뒤편의 매미산으로 넘어가는 길까지를 담당하고 있다. 홀로 책임지기엔 넓은 공간이라서 일을 할 때 나름의 요령이 필요하다. 주변 동료 없이 혼자서 하는 일이라 외롭고 힘들 법도 하지만, 오히

려 그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 아냐?”라며 덤덤하게 받아들인다.

노천극장의 밤이 축제 분위기로 무르익을 때였다. 당시 오 씨의 왼쪽 가슴에는 ‘정규직 전환합의 이행하라’는 구호가 적힌 배지가 달려 있었다. 여태껏 국제캠 청소노동자는 우리학교에 고용된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고용돼 있었다. 학교와 노동자 사이에는 용역업체가 개입했다. 국제캠의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새로 계약할 때가 찾아오면 혹시 잘릴까 마음 졸이는 일은 오 씨에게 반복됐다. 매년 동료를 떠나보내는 것도 오 씨에게 익숙한 일이었다. ‘잘릴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 오 씨가 가슴에 배지를 다는 이유는 그런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다.

오 씨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것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단순한 욕심은 아니었다.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직고용으로 잘 돼봤자 소용없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애를 길러야 되잖아?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다시 만난 오 씨의 옷차림에는 자그마한 변화가 생겼다. 올해 9월부터 국제캠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배지를 달 필요가 없어졌다. 용역업체의 로고가 박혀있었던 작업용 조끼도 벗어냈다. 모자 종류도 바뀌었다. “오늘은 깜빡하고 집에 놔두고 와서 야구부에서 하나 빌려온 거야.” 파란색은 아니었지만, 측면의 ‘KHU’ 로고 때문인지 모자는 오 씨와 더욱 어울렸다.

“이제 진짜 경희대학교 소속이 된 거니까 금지가 생기지. 젊은 사람한테는 정말 잘 된 일이야.” 오 씨의 왼쪽 가슴에 담아냈던 소망은 어느새 ‘희망’이 됐다.

셰프의 솜씨로 일상을 맛있게 맛의 신세계 피코크 밀키트

#풍성한고명 #손쉬운요리 #비밀연구소특제소스

